

“목표는 우승! 매 경기 이기는 게임할 것”

이범호 KIA 감독 필승 출사표

자신감 있는 자신만의 플레이로 팬들에게 즐거운 야구 선사 나성범 공백 '위기를 기회로', 더 단단해진 팀워크 보여줄 것

“목표는 우승! 매 경기 이기는 게임하겠다.”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은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팬들을 위해 즐거운 야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기는 게임을 하겠다”며 올 시즌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오는 23일 홈 개막전에 나서는 이범호 감독은 시즌 초반 엔트리 구성에 대해 “시즌 초반 키움과 롯데와의 홈 5연전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엔트리를 잘 계획”이라며 최상의 전력으로 나선다는 각오다.

이 감독은 키움과의 홈 개막전 선발 라인업 구성에 대해 “우리 팀이 지난 시즌 키움 투수 후라도의 공을 워낙 잘 못쳤다. 하지만 현재 선수들이 워낙 컨디션이 좋아서 올해는 다르다”며 “과거 경기에서 후라도 공을 누가 가장 잘 쳤는지 먼저 체크하고, 선발 라인업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우성의 우익수 출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감독은 “우성이 후라도 공을 워낙 잘 친 경험이 있어 코칭 스태프와 얘기 중에 있다. 다만 우성이 발목 상태가 좀 안좋기 때문에 먼저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했다.

또, 이우성과 황대인의 1루수 경쟁에 대해서는 “시즌 초반 둘 다 사용하는 카드로 같 것이다”며 “우성을 외야에 기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결국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먼저 1루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성범의 부상 우려에 대해 이 감독은 “타 팀들 입장에서 성범이가 있으면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성범이가 없어도 소크라테스나 최형우, 김선빈, 하위타선 등에서 잘 받쳐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 감독은 “매 경기마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며 “작년에 경기 초반에 점수를 못내다가 후반에 점수를 낸 경기가 많았다. 초반만 잘 버틴다면 후반에 좋은 승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팬들을 위한 플레이도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한다. 어떤 플레이를 하라고 지시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선수들이 자기 본인들만의 색깔을 잘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먼저 환경을 만들어



이범호 KIA 감독이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V2'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주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은 올 시즌 목표에 대해 “모든 팀들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초반에 성범이가 없어서 우려가 크지만, 야구라는 게 초반도, 후반도 중요하다”며 “선수들이 얼마나 풀풀 뭉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선 매 경기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홍철 기자



티샷하는 신지애

/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디벨리는 좋은 기억 있는 곳”

신지애, 내달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출전

프로 통산 6승의 베테랑 신지애가 모처럼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팬들을 만난다.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4-7일 제주 서귀포 테디벨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리는 올해 대회에 신지애가 출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시즌부터 일본 투어를 주 무대로 삼아 온 신지애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KLPGA 투어 대회에 나서는 건 2020년 8월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외국에서 열린 대회를 포함한 KLPGA 투어 대회 출전은 2022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프로 통산 6승, 그 중 KLPGA 투어 예선 통산 20승을 올린 신지애는 현재 세계랭킹 18위를 달리고 있으며, 올해

를 열리는 파리 올림픽 출전을 노리고 있다.

신지애는 주최 측을 통해 “오랜만에 국내 팬들 앞에서 KLPGA 투어 경기를 뒀 수 있게 돼 기쁘다. 테디벨리 골프장은 우승(2008년 비씨카드 클래식)했던 코스인 만큼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 “좋은 플레이로 한국 팬들께 인사드리고, 동시에 올림픽에도 한 걸음 다가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올해 KLPGA 투어 국내 첫 대회인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엔 앞서 해외에서 열린 시즌 2개 대회 우승자인 김재희(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와 이예원(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비롯해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특히 이예원은 지난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양현종 '최다 K'·최형우 '역대 2호 4천루타'

투·타 기대되는 기록들

23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 축포를 터트리는 2024 KBO 리그에서는 오랜 시간 누적 기록 1위를 차지했던 주인공의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한국프로야구 중흥기인 2000년대 중후반 리그에 등장해 20년 안팎 활약을 펼쳐 지금의 한국 야구를 만든 공신인 이들은 현역 생활 황혼기를 맞아 '통산 1위'라는 훈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기록은 '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홈런 부문이다.

'국민타자'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이 보유한 통산 1위 기록 467홈런을 위협하는 선수는 최정(SSG 랜더스)이다.

2005년 데뷔해 올해가 20번째 시즌인 최정은 통산 458홈런을 때려 앞으로 10만번 더 담장을 넘기면 명실상부한 'KBO 홈런왕'이 된다.



양현종

최형우

박용택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이 2020년에 달성한 KBO 리그 통산 최다 '2천500안타'도 올해는 2위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187안타를 때려 '제2의 전성기'를 연 손아섭(NC 다이노스)이 통산 1위 타이틀을 호시탐탐 노린다.

통산 2천416안타를 친 손아섭은 올해 안타 89

개를 추가하면 KBO 리그 최다 안타왕이 된다.

1천542타점으로 이미 KBO 리그 최다 타점을 달리는 최형우(KIA 타이거즈)의 전설은 이번 시즌에도 계속된다.

최형우(통산 3천966루타)는 루타 34개만 추가하면 이승엽(통산 4천77루타) 두산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4천루타를 달성한다.

누적 루타는 단타와 홈런은 각각 1과 4로 계산하고, 2루타와 3루타는 그대로 2와 3을 더해 준다.

최형우는 112루타를 추가하면 최다 루타의 주인공이 된다.

투수 부문에서는 술한 대기록을 제정한 양현종(KIA)이 선배의 위업에 또 도전한다.

작년까지 1천97개의 삼진을 잡은 양현종은 이번 시즌 101개 삼진(전 한화 이글스)의 2천48타 삼진을 101개 차로 접근했다.

현재 9시즌 연속 세자릿수 탈삼진을 이어가는 양현종은 'KBO 리그 삼진왕'도 눈앞에 왔다.

/연합뉴스

‘피치클록’ 올해 시범운영...2025년 1군 정식 도입

수비 시프트도 횡수제한없는 비디오 판독 적용

올해 달라지는 규정들

프로야구는 매년 이상적인 리그 운영을 위해 각종 제도와 규칙을 수정·보완해왔다.

2024년에도 프로야구는 변화한다. 다만 그 변화의 파고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리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과격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리그가 창설된 이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스트라이크-볼 판정 주체를 사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MLB의 경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피치 클록(pitch clock)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피치 클록은 당초 올 시즌 도입하려 했으나 현장의 반대 목소리로 2025년 정식 운용하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베이스 크기가 커지고 수비 시프트를 금지하는 등 많은 것들이 변한다.

2024년은 프로야구 역사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ABS는 시스템 안정성과 정확성에 의문 부호가 붙었으나 시범경기에서 큰 문제 없이 운용되면서 합격점을 받았다. 평가다.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ABS 운영과 달리 시범 운용하는 피치 클록은 논란거리다.

KBO는 21일 “피치 클록은 2024시즌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정식 도입할 예정이며 전반기 내에 관련 세부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프로야구는 수비 시프트도 제한한다.

수비팀은 포수와 투수를 제외하고 내야 홈경계 내에 최소 4명의 야수를 뒤야 하고 2루를



지난 10일 열린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 시범 경기에서 피치 클록이 작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으로 양쪽에 2명씩 서 있어야 한다.

양 팀은 수비시프트 제한과 관련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수비 시프트 제한 위반과 관련한 비디오 판독에는 횡수 제한이 없다. /연합뉴스

U-23 아시안컵 우승하면 올림픽 '최상의 조' 보인다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조 추첨...프랑스, 아르헨은 피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U-23 아시안컵에서 상대해야 할 팀들의 윤곽이 나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1일 프랑스 파리 외곽 생드니에 있는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에서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조 추첨을 진행했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는 16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아직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지 않은 AFC 소속 국가(최대 4개국)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를 대상으로 조 추첨을 했다.

황선홍호 한국은 오는 4월 15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AFC U-23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파리 올림픽 본선에서 만날 상대 팀이 결정된다.

AFC U-23 챔피언십에서 1-3위 팀은 파리올림픽에 직행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예선 4위 팀

인 기니와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펼쳐 본선행 티켓 확보에 도전해야 한다.

파리 올림픽 조 추첨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은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를 피해 D조에 포함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다만 AFC 가맹국의 파리 올림픽 조 배정은 2020년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결과에 따라 정한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강까지 진출했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면 일본이 D조에, 한국이 C조에 포함된다. 일본이 본선행 티켓을 놓치면 한국이 D조에 들 어간다.

D조에서는 2004년 대회 준우승팀인 파라과이가 난적으로 평가되지만, 말 리와 이스라엘은 해볼 만한 상대다.

/연합뉴스

MEN'S OLYMPIC FOOTBALL TOURNAMENT PARIS 2024 DRAW			
GROUP A		GROUP B	
FRANCE	USA	ARGENTINA	MOROCCO
FIFA ICP AFC - CAF	NEW ZEALAND	AFC 3	UKRAINE
GROUP C		GROUP D	
AFC 2	SPAIN	AFC 1	PARAGUAY
EGYPT	DOMINICAN REPUBLIC	MALI	ISRAEL

2024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조 추첨 결과

/EPA=연합뉴스